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돌아오면 으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하나쯤은 잡히는 법이다.

불쑥 찾아온 기자 앞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털어놓고, 씩스러운 표정으로 사진까지 몇 컷 허락하지만 글썽, 이것으로 자신의 참 모습이 정확히 전달됐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문홍규(30) 씨와 두어 시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 이미지란 놈은 또 제멋대로 또렷한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이번엔 이런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말 잘 들던, 소위 모범생 친구에게서 영 엉뚱한 일면을 발견하게 될 때의 묘한 친근감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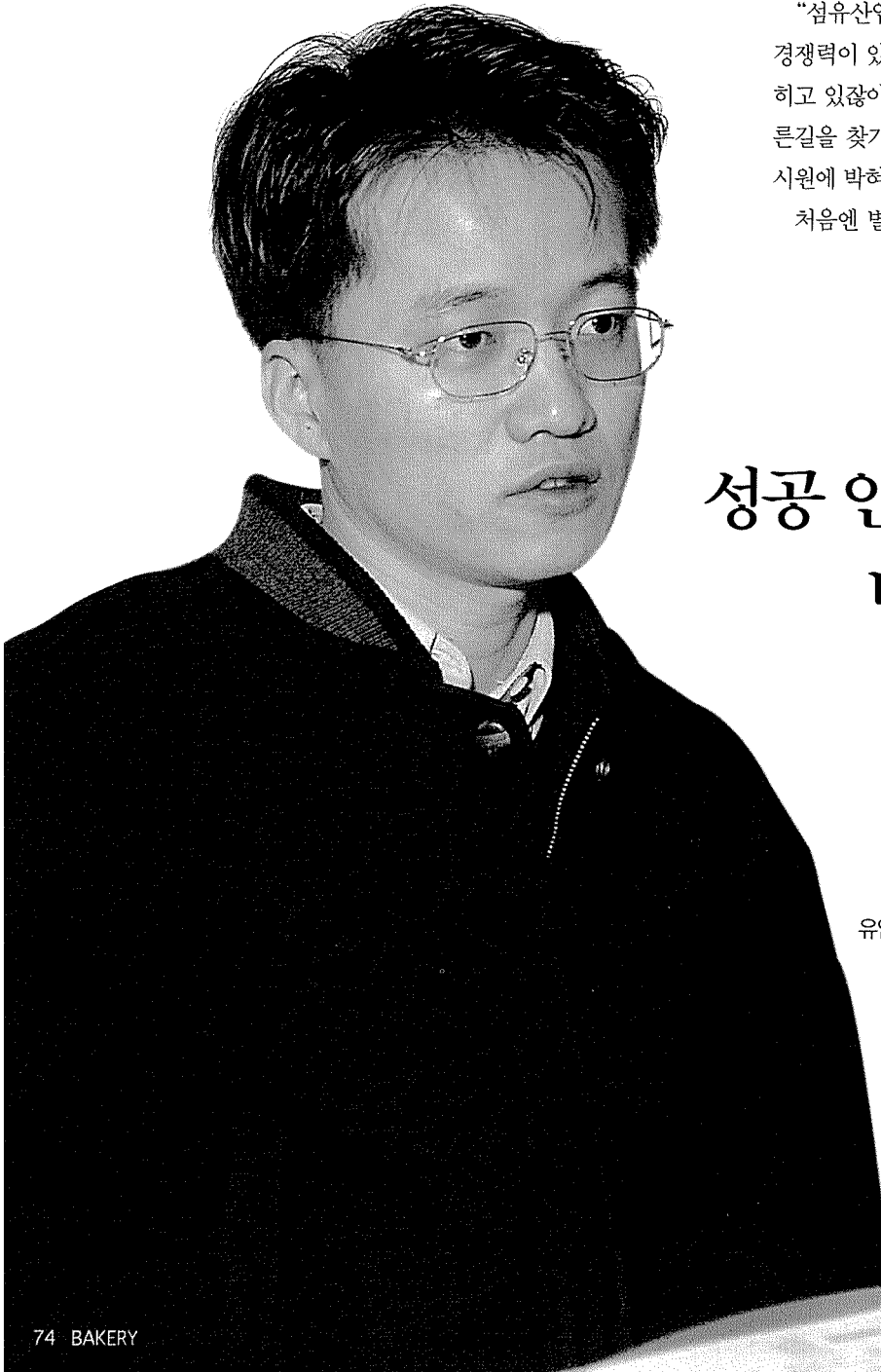
먼저 그의 이력부터 들추어 보기로 하자. 2남1녀 중 막내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했던' 그는 이른바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고려대 농생물학과를 나왔다. 유전공학이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던 때라 유전공학과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안정 지원을 위해 차선(次善)으로 택한 것이 유전공학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은 농생물학과였다.

“결과적으로 제과제빵과 아주 무관한 공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배운 미생물 발효학 같은 것은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인 바탕이 있으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한 점이 많지요.”

그의 유암산업 입사일은 지난 96년 12월로 이제 만 15개월이 다 되어간다. 나이에 비해 입사가 늦어진 건 졸업 후 2년여 동안 한 섬유회사에 몸 담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섬유산업이란 게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산업화 초창기애나 경쟁력이 있지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평생 직장에 대한 회의가 생기길래 고민 끝에 다른길을 찾기로 결심을 했죠. 섬유회사를 퇴사한 뒤 한동안은 고시원에 박혀 고시공부를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기대없이 유암산업에 합류했지만, 오히려 그는



# 성공 인생의 해법은 나만의 방정식으로

유암산업 문홍규 대리

누구나 처음부터 성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온 환경이 제각각이듯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수순도 매우 다양하다.  
유암산업 문홍규 대리가 발견한 성공 인생의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젊은날을 기록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다.

입사 이후에야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내심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고 한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寒波)로 당분간의 경기 위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베이커리 업계가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같고 닳아온 영어 외에, 요즘 그가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어쨌든 문홍규 씨는 유암산업의 11명 직원 가운데서도 무척 바쁜 축에 속한다. 리치몬드 제과제빵 종합상가를 찾은 사람들은 언제나 전시장 안을 바쁘게 오가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문홍규 씨를 만나거든 주저치 말고 필요한 물건의 구입처를 물어보라. 이내 그는 싱긋 웃으며 유암산업 전시장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의 주업무는 물품 발주와 통관,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제과도구들을 취급하자면 제과제빵 이론에 대해서도 어지간한 지식쯤은 갖춰야 한다. 유암산업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은 대부분 제과점을 운영하는 현장 출신들이 많아 그 역시 지금껏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지식이 이제 어지간한 반풍수(半風水)는 능가할 정도가 된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상담을 하던 업주들이 "제과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소도구의 장단점을 하나 하나 꿰뚫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온 덕분이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1,500여 가지 품목의 각종 제과 소도구와 식플류를 관리하자면 그 역시 제과업에 프로그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죠. 늘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 업무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외국에서 수집한 상품 카탈로그를 검토해 수요를 산출하고, 물품 발주며 판매에 매달리다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소도구 중에는 간혹 아직까지 국산과 외국산의 품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제품도 있게 마련이다. 호주나 영국, 독일의 회사들까지 총 500여개 업체의 각종 도구들 가운데 가격과 기능을 고려해 가장 '가능성 있는' 상품 하나를 결정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시장성을 미리 예측하자면 당연히 기술인 당사자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수시로 확인,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드디어 삼십줄에 마수걸이 신고식을 치른 문홍규 씨는 그 동안 시는 게 너무 바빠서(?) 여태 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볼링이며 스쿼시같은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지만, 미혼인 그에게 가장 즐거운 것은 친구들과 삼겹살 구워 놓고 마시는 짜릿한 소주 한 잔. 이제 어느덧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지만 올해 안에 상투를 틀게 될지는 정작 본인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가정용 제과도구를 사러 오는 주부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도 제빵제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올해부터는 회사가 호텔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 한층 바빠질 것 같아요."

여자 친구 있느냐는 질문에 엉뚱하게 회사의 98년 사업 계획을 둘러대는 그에겐 여자친구가 정말 없는 것일까. 짓궂은 마음에 재차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결혼을 하면 직접 맛있는 빵과자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직 실습 횟수가 적어서 영 자신이 없다"는 알쏭달쏭한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의 '엉뚱한' 일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 문홍규 씨가 고백한 그 엉뚱함의 정체는 이런 것이다. 여태껏 누구에게 보여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편소설을 써오고 있는 참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문제작은 아니지만 '연애와 이념을 주제로 한' 몇 편의 소설을 개인 컴퓨터에 담아놓고 틈날 때마다 다시 고쳐 쓰는 일이 그의 은밀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글로 정리해두고 싶은 욕심 때문이지요. 그러자면 언제나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이가 들어 그 글을 다시 읽더라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영악하지 못한 그는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란 걸 곧이곧대로 드러내고 만다. 이를테면 젊은날의 비망록 같은 글이겠거니 짐작은 하겠는데, 인터뷰 말미엔 도리어 은근한 걱정이 앞선다. 적어도 지금 이 글이 그가 소설속에 그려낸 '문홍규' 씨와 얼마간이라도 닮아있어야 '영터리 인터뷰였다'는 비난은 면할 테니까 말이다. **이**

〈글/이종원〉

